# “법화경 가르침 더 넓은 세상으로”

## ‘현담 허락 법화경 금니사경 초대전’
## 불교천태중앙박물관 1월 12일~4월 21일
## 〈법화경〉 절첩본, 〈화엄경〉 등 총 120여 점 전시



허락 作, 묘법연화경 병풍 14폭.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우측 두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허락 작가(우측 첫 번째)의 안내로 〈법화경〉 금니사경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천태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고려사경연구원과 함께 1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단양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관장 장호) 1층 컨벤션홀에서 ‘현담 허락 법화경 금니사경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금니사경이라는 전통문화를 계승 · 창조하고 사경을 통해 수행과 전법을 실천하고 있는 허락 작가의 법화경〉 〈화엄경〉 병풍, 〈법화경〉 ‘약찬게’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액자 등 총 120여 점의 금니사경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1월 12일 단양 구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법화경〉의 가르침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해지고,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우리 종단의 많은 불자들도 이 감동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120여 점의 작품은 예술과 수행, 그리고 기록문화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다. 약 7만 자의 글자와 7점의 변상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묘법연화경(법화경)〉 병풍의 경우 글자 크기가 5mm에 불과하다. 마치 인쇄를 한 것처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간격이 일정하여 작가의 높은 필력에서 비롯된 예술성과 수행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을 계승한 기록문화로서의 가치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허락 작가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화경〉 사경을 해놓고도 다 펼쳐보일 수 있는 전시공간이 없었는데, 넓은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어 천태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락 작가는 서력 약 60년의 서예가로 1986년부터 금사경 연구와 복원작업을 시작하여 오랜 실험과 연구를 거쳐 작품의 변형 없이 오래 보존될 수 있는 한지와 금가루, 어교(접착제)를 비롯한 금사경 제작기법을 스스로 터득해 〈화엄경〉 절첩본 81권 3회, 〈법화경〉 7권 7회, 〈금강경〉 80여 회, 〈지장경〉 2권 5회 사성으로 30여 년 동안 부처님의 4대 경전을 모두 복원했다. ‘억불’이라는 불운한 시절로 인해 사라져버린 금사경의 의미와 공덕의 가치를 다시 알아보고 아름다웠던 우리 문화의 향수를 그리며 그가 지금까지 받아 적은 부처님의 말씀은 약 250만 자가 넘는다.

‘금사경’이란 경전을 금가루로 베껴 쓰는 것을 말한다. 7세기 당나라에서 시작됐다. 우리 땅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유행했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왕실을 중심으로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많이 조성되며 전성기를 누렸다.

금가루는 먹과는 달리 종이에 두툼하게 묻어야만 발색이 여법하고, 시간이 지나면 접착제의 효과가 떨어져 소실되기 쉽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고려의 금사경은 당시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인해 금사경의 맥은 끊어지고 관련 문헌 하나 전하지 않는다. 극소수의 작품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번 전시는 사경의 의미와 우리 불교문화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허락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미협) 특선,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조계종) 제19회 최우수상, 제22회 문화재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2004년 대한민국종교예술미술제 초대출품, 201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사경전) 초대출품, 2011 대장경천년세계축제(금사경) 초대출품, 2017 법련사 불일미술관 개인전, 2017 한국문화정품관 개인전을 열었다. (043)423-9103

# 국립경주박물관 신년맞아 새 단장

## 신라역사관 2실, 월지관(안압지관) 재개관

### 전면 저반사 유리 채택
### LED조명, 면진 시스템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이 신라역사관 2실과 월지관(안압지관)을 재개관했다. 2018년 전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관(2018.12.15)했던 신라역사관 2실에 이어 면진 진열장 설치를 위해 휴관했던 월지관(안압지관)을 1월 11일 재개관했다.



재개관한 월지관.

전시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한 이번 재개관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전시 감상이 편안해졌다는 점이다. 신라역사관 2실과 월지관(안압지관)에 설치된 면진진열장에는 전면 저반사 유리를 채택했다. 기존에 썼던 일반 유리나 저철분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두께 1cm 기준)이 각각 88%, 91%인데 비해 저반사 유리는 98~99%에 가까워 빛에 의한 어른거림이나 거울과 같은 반사현상이 거의 없다. 조명도 전면 교체하여 문화재감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12월 새롭게 문을 연 신라역사관 2실은 공간구성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한층 더 충실하게 꾸몄다. 금관총, 황남대총, 천마총 등에서 출토된 2,119점(국보 4건, 보물 9건)의 전시품을 중심으로 마립간 시기의 신라능묘와 화려한 황금문화를 집중 조명하고,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의 국제 교류네트워크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한편, 국립경주박물관 대표 문화재인 천마총 금관(국보 제188호)과 금제 허리띠(국보 제190호)를 위한 독립 공간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전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미디어박스를 활용한 도입부 영상, 신라 무덤 분포를 정리한 맵핑 영상, 황금문화재들의 세부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디지털돋보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관람의 즐거움을 더하고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 신라역사관은 기원전 57년에서 기원후 935년까지 한반도 동남쪽에 있었던 천년왕국 신라를 만날 수 있는 전시관이다. 신라의 건국과 번영과정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황금의 나라, 신라’를 조명한다.

주요 전시품은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국보)과 금제허리띠(국보), 조익형관식(국보), 흉식(보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제 고배(보물), 금제허리띠(보물) 등이다.

월지관은 경주 안압지에서 발견된 3만여 점의 통일신라시대 문화재 중에서 엄선한 약 3백여 점의 문화재를 주제별로 전시하여 통일신라 문화, 특히 왕실의 생활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라의 건축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기와, 광배와 금동아미타삼존판불좌상 등의 불교조각품과 당시 궁궐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금속제 접시, 완, 숟가락과 토기, 중국 당(唐)에서 만들어진 청자와 백자와 그 외 목간, 건물을 장식하는 금속공예품, 곱돌로 제작된 장식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경주박물관은 2019년에도 전시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간다. 올해는 신라의 건국과 성장을 다루고 있는 ‘신라역사관 1실’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 국제불교무용대전 참가자 모집

### 2월 1일까지 접수 마감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무용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5회 국제불교무용대전(IBDF) 참가자를 2월 1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불교를 소재로 하며 폄훼 없는 모든 무용의 발표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전공, 비전공 구분 없음)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전통과 창작 분야(현대, 발레, 한국 등 모든 장르) 단독 및 합동공연(단독공연 50분 이상 작품 / 합동공연의 경우, 개인-10분 이상으로 구성된 작품, 듀엣 이상 단체-15분 이상으로 구성)이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 출연자 및 스텝 명단 1부, 작품사진 및 프로필 사진, 동일 공연의 비디오 자료이다. △접수는 이메일(buddhistdance@hanmail.net/파일명-2019 국제불교무용대전 공모)로 한다.

비디오 및 서류심사(예선)후 4월 5일부터 28일까지 성균소극장에서 본선, 5월 6일 성균소극장에서 결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 (02)747-5035. 박재완 기자

## 통도사성보박물관, 시민 문화강좌 연다

### 2019년 상반기 전통문화강좌 개설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일반인을 위한 전통문화강좌를 개설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3월 2일부터 ‘2019년 상반기 문화강좌’를 열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불화와 단청, 서각, 드로잉소묘, 전통사경, 생활자수, 전통손비누, 전각 등이다. △불화는 조해종 불모가 담당한다. 조해종 불모는 20년 동안 수강생을 지도하고 이끌어오고 있다. △단청은 홍관식 작가가 담당한다. 홍관식 작가는 수업을 통해 기초부터 작품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외 서각은 서용수 작가, 드로잉소묘는 김명수 작가 등 전통문화 장인들이 강의를 직접 담당한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8개의 문화강좌를 통해 찬란한 불교 전통 문화를 공유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동참과 관심을 독려했다. 문화강좌 신청은 2월 28일 까지 선착순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tongdomuseum.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